



**고창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에 감사장 수여**

고창경찰서(서장 고영환)는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고창군소법조합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고창군소법조합직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난날 14일 오후 2시 33분경 "기존 대출금을 납입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3,000만원을 대출받아 송금하려는 것을 수상하여 즉시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고영환 서장은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법안 검거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범죄예방을 위해 더욱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소방서, 소방용수시설·소화장치 일제 점검**

고창소방서(서장 리명순)는 오는 5월 말까지 불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소방용수시설 540개소, 비상소화장치 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동절기 지표면의 결빙 등으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균열이나 내부 파손, 누수 여부 등을 살펴 현장 활동 시 원활한 급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소방차량 진입 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표지판·보호물 등 보조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등이며,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인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영록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응수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사용상 장애가 있는 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즉각적인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여성농업인 진안군연합회, 역량강화·순회교육**

진안군은 14~16일 한국여성농업인 17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농업인 진안군연합회는 14일에는 군 농업기술센터로 시작으로 관내 10개 읍·면에서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진안군 한여농 회원들의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농업에 선도하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 및 전연방향제(디퓨저) 만들기 과제교육으로 구성된다. 과제교육은 이진경 강사를 초빙하여 이론 위주의 강의보다는 직접 천연방향제(디퓨저)를 만들어보는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하며 한여농 회원들에게 신체·정신·감정적 치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 19로 만남의 기회가 적어져 교류가 소홀해졌던 회원들끼리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김기화 연합회장은 "한여농이 여러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 활력화를 도모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

**최형주 세무사, 오랜 세월동안 선행 실천 '결실'**

독립유공자 엄규영의 후손인 최형주 세무사가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에서 매년 모범 납세자이면서 사회에 기부 및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들 가운데 전국에서 30명(법인, 개인 근로소득자 포함)에게만 부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여 받았다.



20년 경력이 빛나 보이는 순간이다. 상을 수여받은 최 세무사는 15일 KBS 여의도 홀에서 진행되는 국세청장 초청 모범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에 부인과 함께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김재훈기자



**최영규 도의원, '자랑스런 미령인상' 수상**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이리고 총동창회에서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김수홍 국회의원으로부터 '자랑스런 미령인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미령인상'은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학교와 동문의 명예를 드높인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34회 졸업생인 최의원은 그간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라북도 공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함께 수상한 동문은 스타캐프제로 유명한 한빛소프트 창업주 김영민(23회) B&M홀딩스 회장이다. 최의원은 "이리고 동문들 사이에서는 자랑스런 미령인상 수상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는데 대선배님들을 두고 상을 받게 되어 민망하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학교와 동문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고 이리고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분발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의원은 '자랑스런 미령인상' 수상과 함께 차기 35대 동창회 신입 사무총장으로도 임명됐다. 끝으로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개교한 이리고는 올해 65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홍영표 의원과 김수홍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김병관 전 의원 등을 비롯해서 다수의 정관계 유력인사를 배출한 지역사회 명문으로 자리잡았다. /유호상기자



**전주대, 산공과 지능형기계부품 학사과정 '우수'**

전주대학교는 전북도가 후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전북 TP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제인 '산업공학과 지능형기계부품 학사과정'이 2021년도 사업 평가에서 우수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능형기계부품 학사과정은 산업공학과 전공교육과 특성화 3서 교육과정인 신뢰성 설계-검증-관리 전문기과정, 3D스캐닝 및 역설계 교육, 솔리드웍스, 리카디언 교육을 통한 CAx전문기과정, 파이선, R 등을 통한 빅데이터 전문기과정의 취업 역량 강화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도 졸업생들이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주)세움 (주)하림, (주)동우인더스, 국립파넬텍, 동진기계 등에 취업하는 성과를 이뤘다. 산업공학과 지능형기계부품 사업 참여 학생들은 이충호 사업단장의 지도로 2021년 한국농업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상(장예민 외)과 한국기계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이대연 외), 캡스톤디자인 부분에서 5명이 혁신상을 받았다.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충호 교수(산업공학과)는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특색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인재들을 도내 우수기업으로 취업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산업공학과는 2022년도 지능형기계부품사업에서 3학년 10명 이상을 추가 선발해 기존 4학년을 포함해 총 2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이용제 천일제지 대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전주한지 산업화에 앞장서온 이용제 천일제지(주) 대표가 전주시 명예시민이 됐다. 전주시는 14일 시장실에서 34년 전통을 가진 향토기업 천일제지(주)를 이끌고 있는 이용제 대표에게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이용제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천일제지(주)의 총괄 대표이사를 맡아오며 전북에너지산업개발사업특대상 전라북도지사 표창, 오백민물 수출의 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천일제지(주)는 지난 1987년 팔복동에 설립된 제지회사로 34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전주시 향토기업으로, 제지 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도 고강도 화학섬유용 지관 원지 개발을 통해 국내 판매 1위라는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개발한 친환경 표지 소재는 삼성전자 휴대폰 케이스와 방탄소년단(BTS)를 비롯한 한류스타의 음반 CD, DVD, USB 케이스에 사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종이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고령자 고용촉진과 지역 우수 인재 적극 채용을 통해 전주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노인일자리 발굴·추진 박차**

남원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서 고령층의 일 자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총 140억을 투입해 어르신 3,9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남원노인복지관, 남원노인복지센터, 남원사회복지관, 남원시니어센터 등 6개 기관이 수행하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20명이 참여하는 취업알선형은 남원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제 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결해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남원시는 금년에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 지원할 계획으로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건강 키움 ▲카페운영으로 사업수익을 창출하는 주전부리와 ▲공공기관 행정서



**인후3동 새마을회·부녀회, 탄소중립 캠페인 진행**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임순)는 14일 '기후 위기 2050 탄소중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강조하며 ▲대기전력 차단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마크 제품 우선 사용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배출량 줄이기 ▲나무심기 운동 적극 동참 등 행동수칙을 홍보했다. 황승일 회장은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작은 행동들을 함께 실천해 나가자"며 "앞으로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비스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다층빌딩 등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정류장지킴이 사업단을 통해 시내 주요노선 터미널과 정류장에 배치하여 방역과 노선안내를 통해 안전관리와 환경정비에 이어 관광객의 가이드 역할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삼천2동 두부사랑 최승혜 대표 120만원 장학금 후원**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두부사랑'의 최승혜 대표는 14일 동 주민센터(동장 이희숙)를 방문해 현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최 대표는 새하기를 맞아 학용품, 교복비 지원 등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탁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2가구에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최대표는 의복비 გადა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성금 100만 원씩을 2020년과 2021년에도 기탁한 바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햇빛가리개 천막 3동 기증했으며, 2021년에는 보리쌀 100포와 겨울배의 44벌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우석대 방명애 교수, 국립특수교육원 공모 선정**



우석대학교 방명애 교수(특수교육과)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선택교과(정보통신·생활영어·보건) 교육과정 시간 개발 연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본 교육과정은 발달장애를 포함한 지적장애와 중도 중박장애 등을 지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장애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앞으로 방 교수는 중학교 1~3학년과 고등학교 1~3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기본 교육과정 선택교과의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방명애 교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일상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초학력 중심으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자립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